

국제유가 하락세 오래가지 않는다!

갑작스런 경기하락으로 급락세 전환 ... 글로벌 경제회복이 흐름 좌우

국제유가 하락세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BP(Britishi Petroleum) 등 원유기업 대표와 정치인들은 11월3일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원유전 사회와 회의에 참석해 2008년 여름 배럴당 145달러를 기록하던 유가가 최근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것은 공급 과잉이 아니라 갑작스런 경기하락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글로벌 경기회복세로 새로운 유가 급등 시기를 맞지 않도록 원유업계는 원유 및 가스개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시아의 일부지역에서는 원유 수요가 늘고 있고 글로벌 경제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결국 원유수요 증가율에 또다시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원유 수요 증가율의 가속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독립적인 애널리스트들도 전세계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동안에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보다 훨씬 아래에 머물 것으로 보면서도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유가반등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1/04>